

싱가포르 이중 언어 현실과 교육 정책

- 역사적 형성 과정과 사회적 함의를 중심으로¹⁾

김지훈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김성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과 석사과정

인천한누리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엄마는 영어 모르잖아.”

할리우드 영화 <굿모닝 맨하탄>(2012)에서 영어를 못하는 엄마 사 시에게 딸이 던진 이 말은 그녀에게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 가정에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홀대와 무시를 당하던 그녀는 결국 가족들 몰래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한다. 영화 속에 내내 흐르는 ‘영어’가 지닌 암묵적 권력의 메시지는 비영어권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개

1) 이 글은 ‘사회과학연구’의 허락을 얻어, 영어로 발표된 Kim(2012)의 내용을 한국어 독자에게 맞추어 전면 수정한 글임을 밝힌다.

인의 지적 능력, 사회적 지위를 영어 능력을 통해 가능하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의 유무는 큰 함의를 지닌다. 또한 다수의 한국 부모들은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영어를 비롯한 다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길 희망한다. 그래서 해마다 수천 명의 한국인은 기러기 가족이 되기를 결심하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전 세계로 떠난다(김지훈 2006, 2007, 2010; 홍석준·성정현 2013; Kim 2010, 2013; Kim 출간 예정). 이는 현재 ‘영어’가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렛대로서 국경을 넘는 지리적 이동도 하도록 만드는 세계적 추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이중 언어 정책 및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학계와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두 가지 언어(영어를 비롯한 모어)에 능통하게 된다니, 얼마나 매력적인 정책인가! 특히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싱가포르 영어에 대한 평가는 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Lim et al. 2010:vii). 그러나 단순히 이중 언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습득 가능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오해다. 다시 말해 이중 언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싱가포르의 사례는 학술적으로 반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일반 대중이 열망할 수 있는 이중 언어에 대한 낭만적 시각은 마치 유토피아와 같이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꿈이라는 것을 보여 줄지도 모른다.

싱가포르는 언어 정책과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이중 언어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실천하는 국가이다. 싱가포르 국민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 타밀계 사람들은 영어와 더불어 본인의 민족적·언어적 배경에 따라 각각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싱가포르 사회에서는 ‘모어(mother tongue)’라고 부름)에 능통하도록 하는 교육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Tan 2006:42; Wee 2010:98). 이는 자국의 다민족 인구 구성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정책으로 볼 수 있기도 하나, 언어와 관련된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싱가포르 이중 언어 교육 정책에는 인위적인 측면, 다시 말해 국가 지도자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형성된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 이중 언어 정책은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중 언어 정책이 지난날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과 세계화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국가 중심, 경제 효용성 중심의 긍정적이고 찬사를 보내는 입장(Gopinathan 1996, 1997, 1998, 1999, 2007; Sidhu 2006; Silver 2005)과 일반 국민의 실제 언어 사용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투사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이중 언어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 및 엘리트 집단의 생각을 드러내며, 후자의 경우 인종민족학자와 정치경제론자, 언어학자 등(예를 들어, Chua 2003; Lim 2009; Lim et al. 2010)의 사고에 기반이 된다. 이에 덧붙여 대중적인 관점 두 가지를 추가할 수 있다. 싱가포르 대중 중 최소한 일부가 갖고 있는 시각은 이중 언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체험에 근거한 현실주의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를 셋째 시각으로 꼽을 수 있겠다. 한국 사회의 대중을 포함한 일반이 갖고 있을지 모를 ‘낭만적’ 시각은 이 셋째 시각과 상반된 넷째 시각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싱가포르의 이중 언어 현실과 교육 정책의 도입, 형성 과정, 발전과 변화 과정에 대한 의문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다.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되었던 지도자들의 연설 등과 같은 자료와 더불어 교육학, 언어학, 정치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연구 문헌 등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첫째, 1950년대와 1960

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본 싱가포르 언어 정책,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본 싱가포르 이중 언어 정책 공고화 과정, 셋째,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본 싱가포르 이중 언어 정책에 관한 도전적 과제,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대중의 경험에 근거한 이중 언어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950~1960년대 이중 언어 교육: 영국의 유산

싱가포르에서 영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19년 래플스 경(Sir Stamford Raffles)이 100여 명만 거주하는 한적한 말레이 민족의 어촌이었던 지금의 싱가포르 지역에 무역 기지를 설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Ng 2011:1). 이후 싱가포르는 1959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자치 정부 수립 이후 수년간 말레이시아와 잠시 동안 연방을 이룬 후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전까지 영어가 행정과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독립 직전 수년간의 싱가포르 자치 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 및 언어 정책은 이후 싱가포르의 이중 언어 정책을 살펴볼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절에서는 이 시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언어 교육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자.

식민 통치 동안 영어는 행정과 무역 영역에서 공통어(*lingua franca*)로 사용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영어 교육의 수혜를 입은 계층은 소수의 지역 엘리트에 국한되어 있었다. 일반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민족 언어(*vernacular languages*)와 다양한 방언(*dialects*)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지역 엘리트는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며 영어 학교에서 전문

적인 영어 교육을 받았다(Dixon 2005:26; Tan 2006:42). 당시 영어 구사 능력은 ‘엘리트가 되기 위한 통로’로 인식되었다. 반면 일상 말레이어(bazaar Malay)의 경우 정규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타민족과 의사소통 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50~1960년대 영국 통치 마지막 기간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당시 싱가포르에는 학습 언어를 기준으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4종류의 학교가 존재했다. 일부 말레이어 학교는 정부가 설립하고 지원했으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대부분 지역 주민이 설립하였으며 공적 지원이 없는 사립 혹은 민립(民立)의 형태로 운영되었다(NOOSR 1996:2; Tan 1997:304). 아울러 국가 주도 국민 교육 체계로 이행하기 전까지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 간의 환경이나 시설은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정부 지원은 1959년 이후 신설되는 학교에서나 받을 수 있었으며(Goh & Gopinathan 2008:14~16), 당시 초등학생의 46%가 영어 학교, 47%가 중국어 학교에 등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싱가포르 자치 정부 시기와 1965년 독립 시점 즈음, 싱가포르 정부는 스스로 ‘실용적 다언어주의(pragmatic multilingualism)’로 명명한 이중 언어 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른다(Kuo & Jernudd 1994:72; Lim 2009:53 재인용; Lee 2012). 즉, 네 가지 언어를 공식어로 채택하였는데, 그중 세 가지 언어(표준 중국어(Mandarin), 말레이어, 타밀어)는 싱가포르의 주요 민족 집단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영어’였다(Lim 2009:53; Lim et al. 2010). 또한 교육 환경 개선 및 이중 언어 교육 기반 마련을 골조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도입하여 학교 교육 과정에 국어(말레이어)를 비롯한 네 가지 공식어를 포함시키고, 정부가 각급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다(Goh & Gopinathan 2008:15; Tan 1997:304~

305; Lee 2012). 이 정책을 통해 중전 교육 부문에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취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가 싱가포르 교육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는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대중 교육의 도입에 따라 학령기 아동들의

[표 1] 언어를 기준으로 한 학교 유형별 등록자 수와 비율

언어	1959년		1967년		1972년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영어	163,486	50.9	304,651	58.9	338,043	64.8
중국어	140,231	43.6	175,278	33.8	161,385	30.9
말레이어	15,804	5.0	36,142	7.0	20,946	4.0
타밀어	1,456	0.5	1,814	0.3	1,278	0.3
계	320,977	100.0	517,885	100.0	521,652	100.0

출처: *New Nation*(7 June 1971), *Education in Singapore 2/e*, 1972; Gopinathan(1974:48).

[표 2]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등록자 수: 1959~1965년

연도/구분	초등학교 등록자 수(명)	전년 대비 증가율(%)	중등학교 등록자 수(명)	전년 대비 증가율(%)
1959	272,254		48,723	
1960	290,529	6.7	59,314	21.7
1961	307,981	6.0	67,857	14.4
1962	324,697	5.4	72,308	6.6
1963	341,620	5.2	84,425	16.8
1964	348,167	1.9	99,592	18.0
1965	357,075	2.6	114,736	15.2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1966, *Progress in Education: A Brief Review of Education in Singapore from 1959-1965*; Department of Statistics 1975, *Singapore Year book of Statistics 1975/1975*; Yip, Eng and Yap(1997:8).

취학을 또한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표 1, [표 2 참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에서 정부 주도의 이중 언어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사회적 차원에서 다언어 사용을 자연스러운 일상적 수준에서 유지해 왔으나 독립 이후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중언어주의 정책을 취한 것이다(Lee 2012). 초등학교는 1960년부터 채택되었으며, 1966년부터 중학교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학교 유형별 학생의 비율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1960년대 초반까지 다수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던 중국어 학교는 점차 그 인기를 잃어 가고, 대신 많은 학생들이 영어 학교를 선택해 영어 학교의 인기는 점차 상승했다(NOOSR 1996:2).

결론적으로 영국 식민 시기와 독립 이후(1950~1960년대)의 싱가포르는 ‘언어적 다원 사회(plural society)’였으며, 1950~1960년대는 정부가 국민 교육 체계를 통해 이중 언어를 공식 도입한 시기였다.

3. 1970~1980년대 이중 언어 교육:

싱가포르식 이중언어주의의 공고화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이중 언어 사회로서 싱가포르가 현재의 언어적 사회 환경(linguistic landscape)을 갖추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 특히 1970년대 후반의 교육 개혁과 1980년대 시행한 영어와 표준 중국어 사용 운동을 통해 이전 시기에 도입된 이중 언어 정책을 공고히 하였으며, 1987년부터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 학교가 영어를 수업에서 사용하도록(medium of instruction) 하는 방침을 시행하였다(Lim 2009:

54; Tan 1997:307). 이는 196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이 시점부터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이르자 특히 젊은 층과 교육받은 계층을 중심으로 ‘영어’는 토착 언어를 대체하여 공통어의 지위를 차지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졌다(Lim 2009:55). 현재 싱가포르의 언어적 환경은 바로 이 시기 도입된 정책의 직접적 영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정부는 왜 같은 시기에 도입한 우열 구분 학제(streaming system)에 기반을 둔 교육 제도와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을 결합하였을까?

‘정부 주도적 이중 언어 주의와 이중 언어 교육 제도’의 근거로 싱가포르 정부의 산업화 정책과 결합된(Silver 2005:53~54) ‘실용주의(pragmatism)’를 꼽는 시각이 있다(Lim 2009:55).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이중언어주의는 ‘영어 더하기 다른 하나의 언어’를 의미한다(Silver 2005:54). 이러한 이중 언어 능력은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허브가 되려는 국가 발전 전략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현지 노동력 공급에서 이중 언어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Lee et al. 2008:2; Lockwood 1971; Stahl 1984; Tan et al. 1997; Wong 1974; Yeh & You 1971; Yip & Sim 1990). 싱가포르의 부족한 부존자원을 인적 자원으로 대신 메워 경제 발전을 이끌려는 정치 엘리트의 견해는 이중 언어의 경제적 효용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옹팡분(Ong Pang Boon)은 1966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싱가포르의 국부는 우리의 인적 자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

적 잠재성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계발되어야 한다. 교육받고 계몽된 국민만이 우리 미래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다(Yip et al. 1997:7).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1979년 교육 개혁(싱가포르에서는 이 교육 개혁을 통해 형성된 체제를 ‘신교육 체제(New Education System)’라고 명명)은 추후 이중 언어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언어적 사회 환경을 형성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싱가포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할 만하다. 1978년 수행된 ‘고 보고서(The Goh Report)’를 바탕으로 한 1979년 교육 개혁은 사회적 차원의 이중언어주의의 교육 제도화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이중 언어 교육 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고 보고서’에서는 그간의 교육 문제를 교육의 비효율성, 낮은 문자 해독률, 비효과적인 이중 언어 정책, 그리고 학교 간 성과 격차 등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Tan et al. 1997:Appendix A). 그중 ‘교육의 비효율성’은 이중 언어 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수 학생들만이 이중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자 중 71%만이 초등학교 졸업 시험(PSLE; the Primary School Leavers Examination)을 통과하고, 36%만이 ‘O레벨’ 시험²⁾을 통과하며, 14%만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단지 9%만이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A 레벨’ 시험에 합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되었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중 영어와 중국어 신문 둘 다를 해독할 수 있는 비율이 13%에 그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전체 학생 중 약 10%만이 영어와 모

2) 영국식 교육 제도에서 시행되는 중등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시험의 일종

어에 완벽하다는 보고도 존재한다(Lim et al. 2010:9). 이뿐만 아니라 PSLE와 O레벨 시험 결과에서 학교 간의 학업 성과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고 보고서’는 1966년 첫 도입 이후 1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실행되었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중 언어 교육 체계의 네 가지 주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Tan et al. 1997:403~406).

우리 교육 제도의 기본 목적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학교를 졸업하게 한다는 데 있다. 즉, 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경우 두 개의 제1 언어와 가능한 셋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³⁾ 그러나 학습이 뛰어난 학생의 배우는 속도만을 고려한다면 그 반대의 학생에게는 부적절할 것이다. 일반 계열(academic studies)에서 성공적이지 않은 학생의 경우 기술 계열이나 상업 계열에서는 성공적인 학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1979년의 신교육 체제(the New Education System of 1979)의 주요 조치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별 학업 능력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학업 성과에 근거한 우열 구분 및 계열 구분 제도(academic streaming)를 도입한 것이다(Silver 2005:55).

이 시기에 시행된 또 다른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는 1986년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로 운영되어 온 학교를 공식적으로 완전 폐쇄한

3) 싱가포르의 학교 교육에서 영어는 ‘제1 언어’로 불리며, 주요 민족들의 모어(mother tongue)는 ‘제2 언어’로 불린다(Ng 2011:2).

것이다(Hornberger & Vaish 2009:307). 이를 통해 영어를 제1언어로, 학생들의 모어를 제2언어로 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제도가 확립되었다(Hornberger & Vaish 2009:311).

그렇다면 신교육 제도의 함의와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우열 구분 제도의 도입은 엘리트 트랙이 제도적으로 형성됨을 의미했다(Silver 2005:55~56). 이 구조는 비(非) 엘리트 과정 출신의 기술계 중등 과정과 전문계 고등 과정 이수자 증가와 더불어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과정의 계층화된 구조가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표 3, [표 4 참조]). 특히 기술 학교, 전문 대학, 일반 대학 등록률의 팽창 추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문 대학보다는 일반 종합 대학의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 것과는 구별된다.

이중 언어 교육 제도가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이중 언어 과목은 대학 진학 시 필수 과목이 되었다. 이러한 이중 언어 교육과 함께 생각해 볼 요소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 중이었던 '중국어(중국어 방언과 표

[표 3] 공립 학교 학생 수, 1965~2005년 (단위: 명)

학교 유형/ 연도	1965	1975	1985	1995	2005
초등학교	355,096	328,034	277,875	261,553	290,261
중학교	104,720	160,556	163,590	180,982	213,063
일반계 고등학교(Pre-University)	6,671	13,782	24,699	21,690	28,901
기술학교(ITE,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1,193	9,830	18,894	9,476	21,603
전문 대학(Polytechnics)	3,208	9,276	21,610	46,841	64,422
국립 교육대(NIE)	5,603	685	1,125	2,482	3,676
종합 대학	4,996	8,540	16,958	34,591	59,441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2007; Goh and Gopinathan(2008:15).

[표 4] 학교 유형별 등록률(Gross Enrollment Rate, %), 1965~2005년

연도	1965	1975	1985	1995	2005*
초등학교	108	108	110	98	101
중학교	57	70	90	105	106
고등학교/기술교육원 Pre-University/ITE	10	20	41	38	69
전문대/사범대/대학	6	6	14	39	58

*2005년 자료는 사립 기관을 포함함.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2007; Goh & Gopinathan(2008:15).

준 중국어’이다. 이는 이중 언어 교육 정책과 현실 언어 사용 사이의 괴리를 보여 준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대학으로 진학 가능한 계열의 고등학교(싱가포르에서는 pre-university 과정 혹은 junior college라고 부름)는 소수에 불과했는데 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제1, 제2 언어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Lee 2012: 15). 당시 싱가포르에는 중국어 방언을 주로 사용하는 환경을 지닌 가정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가정에서 영어와 표준 중국어를 원활히 습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실제 1975년에서 1977년 사이 초등학교 졸업 시험 응시자와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입학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O레벨 응시자의 60% 이상이 영어 혹은 중국어, 또는 두 언어 시험 모두에서 낙제하였다(Oon et al. 2009).

그뿐만 아니라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 있는 가정에서도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이들과처럼 중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불만과 고통을 신문에 기고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89년 <The Strait Times>에 기고한 폴린 탄(Pauline Tan) 여사의 경우, 자신의 첫째 아들이 이러한 교

육의 희생자라는 내용의 글을 투고하기도 하였다(Tan 2009). 그녀에 따르면, 그녀의 아들은 지루하게 진행되는 중국어 수업, 낮은 중국어 성적, 이로 인한 자존감의 하락으로 점차 학교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그녀의 둘째 아들 또한 싱가포르의 융통성 없는 이중 언어 정책으로 능력을 계발하기 어렵게 되자 그녀는 싱가포르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밝혔다(Tan 2009). 이렇듯 당시 중국어 교육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은 중국어 교사의 경우 중국어로만 중국어 지도 교육을 받아서 영어 등 다른 언어를 이용하여 내용을 설명할 수 없었고, 타 언어권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법을 통해 중국어를 습득하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Lee 2012:63). 특히, 당시 소수였던 영어 전용 사용자층(1982년의 경우 약 10% 정도만이 영어 사용자 가정의 출신이 있음)의 중국어 학습은 더욱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Oon et al. 2009). 또한 학습자들의 상이한 학습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후 2004년에 이르러야 학습자들의 상이한 학습 수준을 고려하고 암기 위주가 아닌 다양한 교수법을 반영한 맞춤형 모듈 교육 체제가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 이 기간에 영어 사용자와 중국어 사용자 학생 모두에게 영어와 표준 중국어를 학교 교육 과정에서 습득하고 학업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시행된 교육 체제 개편과 결합된 1970~1980년대 이중 언어 교육 정책(Lee 2012:55~67)은 1979년 교육 개혁을 기점으로 학업 성취에 따른 이중 언어 교육 기회를 더욱 계층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소수만이 진할 수 있던 엘리트 과정 출신이 고급 수준의 이중 언어 교육의 주요 수

혜자로 떠오른 것이다. 더불어 이중 언어 사용 취지에서 진행된 융통성 없는 중국어 교육 정책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다.

4. 1990년대와 2000년대 이중 언어 교육: 연속성, 변화 그리고 도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갖는 한편 변화도 있었다. 현재 멘토 장관(Minister Mentor)이자 과거 오랫동안 수상을 역임한 리관유를 비롯한 싱가포르 지도자들의 이중 언어 정책 추진 초기에 대한 회고(Lee, 2012)와 이중 언어 정책의 결과 형성된 현재의 싱가포르 사회에 대한 재평가(Lim et al. 2010)는 이 정책이 안고 있는 도전적인 문제를 잘 보여 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교육 제도에 관련한 주요한 변화로는 첫째, 고등 교육의 팽창이 두드러진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팽창은 이전 시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학생층까지 진학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전 시기의 고등 교육 정책은 전문 기술직과 엘리트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 코호트⁴⁾ 대비 25% 정도만이 싱가포르 소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싱가포르 내 고등 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기회가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Goh & Tan 2008:162). 예를 들어,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와 SIM 대학을 비롯한 여러

4) 사회학, 인구학에서 일정 연도(5년 혹은 10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집단을 구분할 때 쓰는 말.

신규 대학이 2000년대 초반 새로 설립되었다. 또한 전문 대학 졸업자들이 학사 학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싱가포르의 전문 대학과 해외 고등 교육 기관을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기술 대학(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도 설립되었다.

둘째, ‘능력에 따른 교육 체제(ability-driven education system)’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2007년의 개혁은 우열 구분 학제(streaming system)를 계속 시행하지만, 중등과 고등 교육 기간 중 학업 계열(stream) 간 이동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학업 계열 운영에서 유연성(flexibility)을 높여 과거의 제도하에서는 대기만성형 인재들이 조기에 탈락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한편, 주류 정치 엘리트와 정책 행위자는 여전히 영어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육 제도와 언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Silver 2005; Wee 2009). 이들은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싱가포르 경제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보았다(Gopinathan 1996, 1999, 2007; Ng 2010). 정부는 표준 영어와 표준 중국어의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주도하며 이중 언어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대다수 중국계 싱가포르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던 중국어 방언의 사용을 억제해 나가는 것에 목적을 둔 표준 중국어 사용 캠페인(the Speak Mandarin Campaign)은 1979년 이후 해마다 시행되었다(Tan 2006). 더불어 2000년 4월 고혹통(Goh Chok Tong) 수상이 제안한 표준 영어 사용 운동(SGEM; the Speak Good English Movement)을 통해 일반 싱가포르 국민들이 사용하는 싱글리시(Singlish: 싱가포르 억양과 토착 방언에 근거한 단어가 미미된 영어)의 사용을 줄이려는 국가 수준의 노력이 추진되었다. 당시

싱가포르 공중파 방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트콤 프로그램이었던 'Phua Chu Kang Pte Ltd'에서 싱글리시 유머로 웃음을 주는 남자 주인공 역할을 하던 배우 거밋 싱(Gurmit Singh)은 고 총리의 연설 중 싱글리시 사용자의 예로 언급된다. 고 총리의 언급 직후 거밋 싱이 표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수년간 중단된다. SGEM 발족 1년 뒤 전 총리이자 당시 선임 장관(Senior Minister)이었던 리관유는 싱글리시를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핸디캡으로 선언한다(Bokhorst-Heng 2005:185). 표준 영어 사용 운동 발족 선언 연설에서 고총통 수상은 경제적 유용성을 강조하며 표준 영어의 사용을 촉구하였다.

유창한 표준 영어 구사 능력은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소통하는데에 뚜렷한 이점이 된다.……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오염된 영어를 말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비교 우위를 잃게 된다.……우리 노동자가 말하는 것을 다국적 기업 관리자나 감독자가 추측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은 이곳에 오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교육과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해외의 시청자가 싱글리시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우리 TV 프로그램과 영화 또한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 주도적 정책과 SGEM과 같은 정부 주도적 캠페인에 의해 추동된 싱가포르의 이중언어주의는 '실용적인 이중언어주의'라고도 지칭되지만(Lim 2009:53), 비판적 언어학자와 사회 과학자들은 싱가포르의 이중언어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이중 언어 가족이나 학교에 보다 더 쉽

게 접할 수 있는 계층에 특혜를 주는 정부 주도적 이데올로기로 바라본다(Bokhorst-Heng 2005, 2007; Chua 2003; Dixon 2005; Hornberger & Vaish 2009; Lim 2009; Wee 2005; Lim et al. 2010). 비판적 언어학자와 사회 과학자들은 정부 주도적 캠페인과 담론은 민족과 언어가 다양한 싱가포르의 문화와 싱가포르인으로서, 정체성에 부정적 함의가 있다고 지적한다(Bokhorst-Heng 2005; Lim 2009; Silver 2005; Stroud & Wee 2007; Wee 2009, 2010).

싱가포르의 이중 언어 정책 및 교육 정책은 가정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고 표준 중국어를 이미 습득한 고소득 고학력 계층의 자녀는 표준 중국어의 체계적 학습을 통해 정책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혜 폭이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다. 그러나 싱글리시나 다른 토착어 및 방언을 구사하는 상대적 저소득, 저학력 계층 중심의 언어 집단에는 두 언어 습득과 구사에 이중의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Tan 2006; Tan & Tan 2008; Lim et al. 2010). 고소득· 고학력층의 수혜는 시장에서의 소득으로 실현된다. 예를 들어, 1990년 인구 총조사(Census) 자료에 따르면,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단지 4.38%만이 월 소득이 1,000달러 미만이었고 67.55%는 월 소득 1,000달러와 6,000달러 사이의 소득을 얻었으며, 28.07%는 월 소득 6,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1993:103; Bokhorst-Heng 2005:201 재인용).

가장 최근의 2010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민족 집단 중 영어 사용자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졌으며, 특히 중국계와 말레이계 내부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11). 더불어 가정 내 영어 사용에서도 교육 수준에 따라 그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표 5] 민족 집단별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1990~2010년
(단위: %, 5세 이상 인구)

민족 집단	언어	1990년	2000년	2010년
중국계	소계	100.0	100.0	100.0
	영어	19.3	23.9	32.6
	표준 중국어	30.1	45.1	47.7
	중국어 방언	50.3	30.7	19.2
	기타	0.3	0.4	0.4
말레이계	소계	100.0	100.0	100.0
	영어	6.1	7.9	17.0
	말레이어	93.7	91.6	82.7
	기타	0.1	0.5	0.3
인도계	소계	100.0	100.0	100.0
	영어	32.3	35.6	41.6
	말레이어	14.5	11.6	7.9
	타밀어	43.2	42.9	36.7
	기타	10.0	9.9	13.8

출처: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0 and 2010, Census Data.

2010년 인구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인구의 경우, 중국계는 대학 학력자가 49%였으나, 중등학교 학력 이하가 6.4%에 불과했고, 말레이계는 대학 학력자가 47%였으나 중등 학력 이하는 4.4%였고, 인도계는 각각 38%와 21%에 해당했다(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10:27). 싱가포르 맥락에서 부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주거 형태별로 살펴보면, 상위 10% 정도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고급 민영 아파트와 주택 거주자 중 중국계는 55.9%, 말레이계는 41.1%, 인도계는 64.9%가 가구 내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했다. 이

러한 수치는 언어와 사회 경제적 지위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중산층 이상이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집단임을 보여 준다 (Bokhorst-Heng 2005:201).

따라서 이중 언어 교육 정책과 더불어 언어 자본의 격차는 학업과 가정 내에서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안겨진 도전적 과제를 암시하는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이중 언어 정책에 대한 최근의 재평가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 진화되어 온 이중 언어 정책은 싱가포르 교육의 기초가 되었으며, 교육 그 이상의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킨 정책이었다. 성공과 효과를 확신하며 진행되어 온 이중 언어 정책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어떠할까?

놀랍게도 해당 정책의 입안자이며 적극적 추진자였던 리관유 전 수상은 최근 발간된 자신의 자서전 《내 생애에 걸친 도전: 싱가포르의 이중 언어 역정(My Lifelong Challenge: Singapore's Bilingual Journey)》(2012)에서 ‘나의 큰 실수(My Big Mistake)’라고 언급하며 정책 근간의 오류와 이에 따른 실수를 자인하고 있다.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대한 노력 중에, 나는 두 언어에 모두 능통해질 수 있다는 나의 근본적인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의 지적 능력 그리고 얼마나 조기에 학습을 시작하는지와 상관없이, 두 언어를 똑같은 높은 수준으로 마스터하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나는 내 세 자녀가 커 가는 것을 보면서 이를 깨달

게 되었다(Lee 2012:68).

우리의 이중 언어 정책 초기 20년 동안의 주요 문제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듣고 읽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스터 언어(Master Language)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입한 조치들은 가정에서 말하는 언어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라는 문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대부분의 어린이들에게서, 약 85%가 가정에서 영어와 표준 중국어 둘 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와 표준 중국어(Mandarin)는 실질적으로는 외국어였다. …… 그것이 학교 중도 탈락률이 높았던 중요한 이유였다(Lee 2012:69).

특히 그는 지능과 언어 능력을 같은 것으로 믿었던 오류를 자인하며, 영어와 표준 중국어를 학교 교육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그가 도입했던 정책 중 가장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회고했다. 더불어 그는 비언어 교과목의 실력만큼 민족 언어, 즉, 제2 언어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지적 능력과 언어 능력은 같은 것이라고 믿었다. 나중에 나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성격의 것(two different attributes)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뇌 의학자인 내 딸이 이걸 확인해 주었다(Yong 2009).

처음 이중 언어 정책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야 그간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서 진행되었다는 리관유 수상의 최근 언급은 싱가포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중 언어 정책과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도입되고 강화되던 1960

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이 정책에 확신을 갖고 지지했던 그와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 수많은 싱가포르 대중은 ‘현실적 어려움’에 근거하여 이중 언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Lee 2012).

현실적 어려움은 다양한 단계와 수준으로 존재했다. 첫째, 상급 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1974년 11월 당시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1,000명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중 약 206명이 초등학교 졸업 전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였으며, 나머지 중 440명만이 10년 후 중등학교 4학년까지 계속 학업을 수행했다. 그중 단지 106명만이 졸업 후 O레벨 시험에서 3과목 이상을 통과했다. 원래의 1,000명 학생 중 단지 10.6%만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의미했다(Lee 2012:66).

둘째,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에서의 중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언어 정책 초기, 대부분의 중국어 교사들은 중국어로만 배운 교사였고, 당시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중국어 교사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표준 중국어를 제2 언어로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한 제2 언어로 중국어 학습에 부담을 느낀 다수의 학부모들은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말레이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Lee 2012). 2004년 대학 입학 자격시험의 점수 합산에서 중국어가 배제되기 전까지 중국어 시험 최소 성적(D7 수준)을 취득하는 것이 대입 필수 요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열악한 이중 언어 교육 환경에서 어려운 중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상황은 진학에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이다.

셋째, 이중 언어 정책의 운용에서 유연성 부족은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도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폴린 탄(Pauline Tan) 여사의 기고문에서 그녀의 둘째 아들은 1989년 5세 때 뛰어난 영재로

판명되어 영재 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제도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진학을 허락받지 못했다. 그녀는 1990년대 초반 당시에 이중 언어 정책이 덜 엄격했다면 호주로 이주하기보다는 싱가포르에 계속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1959년 12월 8일 최초로 이중 언어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연설할 때, 리관유 전 수상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들의 언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우리는 4개로 나누어진 언어 장벽이 있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Lee 2012:51~52).

국민들의 화합과 부강한 국가의 건설에 대한 대의를 표방하여 진행된 싱가포르의 이중 언어 정책. 과연 그의 초기 천명대로 싱가포르의 이중 언어 정책이 언어 사용자 층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리관유의 이중 언어 정책에 관한 자서전을 참고해 볼 때, 이 문제는 아직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정책 실패에 대한 자인은 한 사람의 신념과 우월적 태도로 인해 한 사회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6. 맺는말

앞서 우리는 독립 이후 싱가포르의 이중 언어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인들의 이중 언어 사용 양상 및 이로 인한 사회 계층화의 면모를 살펴 보았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강화된 이중 언어 사용 정책은 교육 제도적 측면에서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시기는 식민 통치 마지막 기간까지 이루어진 영국 식민 정부의 자유방임 정책을 들 수 있다(Tan 1997; Lee 2012). 이 시기에 다수의 민중은 자신의 민족 토착어를 사용하였지만, 소수의 로컬 엘리트는 영어 학교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으로 자치 정부 시기와 독립 직후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주요 언어가 공식어로 인정되고 국민 교육(national education)이 도입된 시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시기는 1979년 신교육 체제 도입 전까지로 싱가포르 방식의 이중언어주의가 강화되는 시기로 특징지어진다(Silver 2005).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가 도입된 것은 1966년도였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 싱가포르 방식의 이중 언어 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점차 강화되었다(Lee 2012). 1979년의 교육 개혁은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싱가포르의 언어적 사회 환경을 형성하는 데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에 따른 사회 계층화를 야기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개혁은 언어 능력과 학력을 토대로 한 문화 자본이 싱가포르에서 사회 경제적 계층화를 강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의 언어와 기타 학업 능력에 따라 구분되는 능력별 계열 제도는 이후 중등학교와 대학까지 그 영향이 이어져 개인의 진로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지막 시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정책적 실패를 일부 수정하였지만 근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이전 시기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야기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들로 도전받고 있다. 언어 집단별, 학력 집단별 사회 계층화의 문제, 그리고 세대 간 의사소통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싱가포르 방식의 이중 언어 정책이 현재 도전받고 있는 상황의 일부는 실제 이중 언어 사용과 정책적 현실 사이의 괴리가 야기하는 비판적인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영어 사용의 독려와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민족 토착 언어와 방언 사용 억제 사이의 충돌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언중(言衆)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위로부터의 정책적 언어 사용 도입은 국가 정체성과 국가 유산으로서 언어의 측면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im 2009; Silver 2005; Wee 2009). 둘째,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받아 온 젊은 층의 민족 모어 구사 능력의 약화 또는 상실을 문제로 들 수 있다(Wee 2011:206~207). 이중 언어의 두 축을 이루는 영어와 모어에서 한쪽(영어)의 우세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으나 반면 다른 한쪽(모어)은 그렇지 못함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은 최근 이중 언어 정책에 관한 재평가 측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 이중 언어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 즉 여전히 낮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노년층과 낮은 수준의 모어를 구사하는 젊은 층 사이의 세대 간 의사소통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Silver 2005:56). 셋째, 표준 영어를 구사하고 동시에 유창한 표준 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 계층과 그렇지 못한 언어 계층 사이에서 점점 증가하는 경제적 격차 역시 사회 불평등의 주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 이중 언어 정책이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언

중(言衆)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위로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이중 언어 정책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 이중 언어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싱가포르의 이중 언어 정책과 교육 정책이 싱가포르 사회 구조와 국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그만큼 가치 있고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주제라 여겨진다. 아울러 싱가포르 사례에 비춰 볼 때 이중 언어 교육의 현실적 어려움은 영어와 이중 언어에 대해 낭만적 시각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훈(2006), 싱가포르의 외국인재 유치정책(Foreign Talent Scheme), 《동아시아브리프》 1(4), 50~57.
- 김지훈(2007), 급증하는 싱가포르 조기유학,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특집기획 35회. 《경향신문》, 2007년 10월 27일.
- 김지훈(2010), 싱가포르의 교육산업화와 교육 이주, 《동아시아브리프》 5(4), 46~51.
- 홍석준·성정현(2013), 《그들은 왜 기러기가족을 선택했는가: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현장보고》, 서울: 한울.
- Chua, B. H.(2003), Multiculturalism in Singapore: An Instrument of Social Control, *Race and Class* 44(3), 58~77.
- Dixon, L. Q.(2005), Bilingual Education Policy in Singapore: An Analysis of its Sociohistorical Roots and Current Academic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8(1), 25~47.
- Goh, Chor Boon. & S. Gopinathan(2008),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Singapore since 1965, In Lee, S. K., C. B. Goh, B. Fredriksen. and J. P. Tan (eds.). *Toward a Better Future: Education and Training for Economic Development in Singapore since 1965*. Washington, D.C.: World Bank. 12~38.
- Gopinathan, S.(1974), *Towards a National System of Education in Singapore: 1945-1973*.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Gopinathan, S.(1996), Globalisation, the State and Education Policy in Singapore,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16(1), 74~87.
- Gopinathan, S.(1997), Education and Development in Singapore, In Tan, J., S. Gopinathan. and W. K. Ho(eds.). *Education in Singapore: A Book of Readings*. Singapore: Prentice Hall, 33~54.
- Gopinathan, S. (ed.)(1998), *Language, Society, and Education in Singapore: Issues and Trend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 Gopinathan, S.(1999), Preparing for the Next Rung: Economic Restructuring and Educational Reform in Singapore,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 12(3), 295~308.
- Gopinathan, S.(2007), Globalisation, the Singapore Developmental State and Education Policy: A Thesis Revisited,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5(1), 53~70.
- Hornberger, N. & V. Vaish(2009), Multilingual Language Policy and School Linguistic Practice: Globalization and English-language Teaching in India, Singapore and South Africa, *Compare* 39(3), 305~320.
- Kim, Jeehun(2010), 'Downed' and Stuck in Singapore: Lower/Middle Class South Korean Wild Geese (Kirogi) Children in Public School,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17, 271~311.
- Kim, Jeehun(2012), Singapore's Bilingualism and Its Bilingual Educational Polic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ontinuity, Change and Challenge, 1950s-2000s, *사회과학연구* 36(1), 157~177.
- Kim, Jeehun(2013), Returning Experiences of Korean Early Study Abroad (Jogijuhak) Students who Studied in Southeast Asia, *언어와 문화* 9(2), 101~120.
- Kim, Jeehun. (forthcoming). The "Other Half" Goes Abroad: The Perils of Public Schooling in Singapore, In Lo, Adrienne, Abelman, Nancy, Kwon, Soo Ah, & Okazaki, Sumie (Eds.). (forthcoming). *South Korea's Education Exodus: The Life and Times of Early Study Abroad*.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Lee, Kuan Yew(2012), *My Lifelong Challenge: Singapore's Bilingual Journey*. Straits Times Press.
- Lim L. Pakir A. Wee L.(2010), *English in Singapore: Modernity and management*, NUS Press.
- Lim, L.(2009), Beyond Fear and Loathing in SG: The Real Mother Tongues and Language Policies in Multilingual Singapore, *AILA Review* 22(1), 52~71.
- Lockwood, William(1971), Employment, Technology and Education in Asia, *The Malayan Economic Review* 16(2), 6~24.
- Ng, P. T.(2011), Singapore's Response to the Global War for Talent: Politics an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31(3), 262~268.
- NOOSR(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1996), *Singapore:*

- A Comparative Study*. Canberra: 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 in association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 of Austral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 Oon, Clarissa & Kor, Kian Beng(2009), Was Chinese Wrongly Taught for 30 Years?, *The Straits Times*, November 27.
- Pang, Eng Fong(1982), *Education, Manpower and Development in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Sidhu, R.(2006), How to Assemble a Knowledge Economy: Singapore's Transnational Education Project, *Perspectives in Education* 24(4), 45~56.
- Silver, R. E.(2005), The Discourse of Linguistic Capital: Language and Economic Policy Planning in Singapore, *Language Policy* 4(1), 47~66.
-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2010), *Census of Population 2010: Advance Census Release*.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2011), *Census of Population 2010: Statistics Releas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ducation, Language and Religion*.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 Stahl, C. W.(1984), Singapore's Foreign Workforce: Some Reflections on its Benefits and Cos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1), 37~49.
- Tan, C.(2006), Change and Continuity: Chinese Language Policy in Singapore, *Language Policy* 5(1), 41~62.
- Tan, J.(1997), Education and Colonial Transition in Singapore and Hong Kong: Comparisons and Contrasts, *Comparative Education* 33(2), 303~312.
- Tan, Jason, Saravanan Gopinathan & Wah Kam Ho.(1997), *Education in Singapore: A Book of Readings*, Singapore: Prentice Hall.
- Tan, P.(2009), The Price of Bilingualism, *The Straits Times*, November 27.
- Tan, P. K. W. & D. K. H. Tan(2008), Attitudes towards Non-Standard English in Singapore, *World Englishes* 27(3~4), 465~479.
- Wee, D.(2009), Singapore Language Enhancer: Identity Included,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9(1), 15~23.
- Wee, L.(2005), Intra-Language Discrimination and Linguistic Human Rights: The Case of Singlish, *Applied Linguistics* 26(1), 48~69.
- Wee, L.(2010), 'Burdens' and 'Handicaps' in Singapore's Language Policy: On the Limits of Language Management, *Language Policy* 9(2), 97~114.

- Wee, L.(2011), Language Policy Mistakes in Singapore: Governance, Expertise and the Deliberation of Language Ideo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1(2), 202~221.
- Wee, L. & W. D. Bokhorst-Heng(2005), Language Policy and Nationalist Ideology: Statal narratives in Singapore, *Multilingua* 24(3), 159~183.
- Wong, Ruth H. K.(1974), *Educational Innovation in Singapore*, Paris: UNESCO Press.
- Yong, Jeremy Au.(2009), Bilingual policy was most difficult: MM, *The Straits Times*, November 3.